

【서 평】

김동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창비, 2004)

김 남 균

(평택대학교 국제학부 미국학 전공)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의 저자 김동춘은 “전쟁과 시장”이라며 미국은 전쟁을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답한다. 그는 “시장과 전쟁이야말로 미국을 존립하게 해 주는 두 엔진”이라고 단언한다(p.6). 그 이유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한 때 구대륙에서 고통 받던 사람들의 희망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지속시키기 위해 이웃의 시장과 자원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들은 자국 기업가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주기 위해 군대의 주둔, 은밀한 공작, ‘더러운 전쟁’을 감행했으며, 그것을 문명, 반공, 자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과 전쟁준비, 군수산업이야말로 미국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코드다.”라는 것이다(p. 8).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주로 미국의 좋은 점만 알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 “다소 의도적으로 한쪽 측면을 강조한”(p.10)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분량은 366 페이지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의 저서이다.

우선 이 책을 읽고 난 첫 느낌은 저자의 말솜씨가 대단히 힘이 있고 유창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책을 처음 읽는 독자나 혹은 미국에 대하여 막연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시원한 청량음료수를 함께 나누어 마신 것 같은 공감대를 느꼈을 것 같다. 이런 설득력의 바탕에는 저자가

한국의 토종학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주장의 근거로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발간된 학술서나 잡지 혹은 신문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입증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덕일 것이다. 특히 저자가 1년간의 교수 연구 년을 미국에서 보내며 “참여관찰”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이 글을 읽는 일반 독자들의 의심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권위까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은 미국을 분석하고 그 질병에 대한 처방전을 내놓은 저서이기 보다는 미국의 여러 측면 중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미국에 대한 학문적 비평서로서의 균형을 잃은 저서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문제점으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 내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을 밝히는 증거로서의 자료 및 그 자료와 관련된 문제이다. 저자는 “참여관찰”이란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며 신문이나 잡지 혹은 텔레비전 뉴스 등을 자료로 사용하여 마치 뉴스보도와 생생한 내용의 책을 썼으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깊은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도된 것은 어떤 뉴스를 들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언론보도와 주장이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널리즘 보도 수준을 넘어선 보다 결정적인 자료들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본 저서의 자료 문제는 단순한 자료 이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저자는 많은 미국 측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잘 들여다 보면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자료들 중 저자는 미국의 좌파적 시각을 대변하는 저서들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의 역사적 사건 중 쟁점이 되는 전쟁을 논하는 곳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는 저서로는 윌리엄 애플맨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 하워드 진(Howard Zinn)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가브리엘 콜코(Gabriel Kolko) 혹은 브루스 커밍스

(Bruce Cumings) 등의 저서인데, 이들은 좌파적 시각의 학자들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위와 같은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면 최근의 이라크 전쟁은 물론이고 결국 제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도 모두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일본이 살길을 찾아 택한 최후의 생존전쟁으로 이해하고, 수년 동안 연구하였다는 한국전쟁 역시 북한의 남침을 미국의 교묘한 도발유도에 의하여 저질러진 미국의 전쟁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나 혹은 북한의 남침을 미국이 유도하였다는 것은 미국 외교사에서는 이미 거의 폐기된 이론들이다. 물론 예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이론들은 외교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학문적 설득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을 미국적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나온 결과로 주장하고자 2차대전이나 한국전쟁과 모두 같은 축에도 놓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 미국이 참전하였던 각 전쟁은 모두 다른 이유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이 보여주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에 대한 평가이다. 저자는 미국 전반에 대해 상충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 미국에 대한 저자의 진정한 평가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저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은 분명히 지난 20세기 세계문명을 주도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나라이며, 그 문명의 혜택을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려왔다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그는 “미국인은 친절하고 경건하며, 관용적이고 창의적이다. 다재다능·모험심·실용주의·창의성의 상징인 베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정신은 오늘 미국사회의 도처에 숨쉬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것은 단순히 천혜의 자연자원과 지리적 장점 덕분만은 아니다.”라고 평가한다(p.9). 이것도 과거의 미국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늘 미국사회”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

이라는 영역이 ‘사회’로 분류되는 그 모든 것을 집어 삼킨 고삐 풀린 마왕으로 등장한 체제”라며 미국사회를 단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은 “문화적 정체성, 인간의 자기 존중,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예의, 도덕적 의무감 등 모든 가치는 오직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정언적 명령”이 최우선되기 때문에 “고립되고 경쟁적이며 사회적 유대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외로운 인간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p.349). 그렇다면 저자가 보는 진정한 미국인은 시장주의에 매몰된 전쟁광인가 아니면 실용주의 정신을 가진 민주시민인가?

이런 모순 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저자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결론에 잘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스스로 주체로 서기 보다는 스스로 더 좋은 상품이 되어 팔리기 위해 자발적인 노예화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장에 족쇄를 채우고 그것을 더 높은 가치의 종으로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온 국가의 권위를 의심하면서 국가에서부터 사회를 해방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사회와 관련하여 “수많은 한국인의 희생과 고통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경제성장 찬양론은 엉터리 과학일 뿐이며.” 잘못된 사회과학을 배격하고 인간해방의 길을 열어주는 학문을 세워야 하며 ‘좋은 사회’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사회와 인간을 해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밝히지 않고 글을 맺고 있다.

결국 이 책은 미국을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코드”로 전쟁과 시장을 하나로 묶어 미국을 비판한 후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를 통한 인간해방을 주장하였으나 저자가 의미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체”적 삶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향을 가지고 미국의 현실을 비판한 격이 되었다. 평가에는 평가의 잣대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잣대가 없고 유럽을 그 평가의 잣대처럼 약간 비쳤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만약 유럽 방식이 대안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저자가 비판하는 미국사회의 단점과 특히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여 동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미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음 선거를 기대하자. 그리고 미국은 이미 완성된 사회이거나 혹은 역사 속에 화석으로 남은 로마는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으로 끝없이 변화하며 발전 중인 나라가 미국이다. 단적인 예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이민을 보라. 미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제도가 이런 미국을 200년 이상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헌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민주제도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만약 미국경제 발전의 핵심을 따진다면 “전쟁”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서평을 맺고자 한다.